LEETWORLD 법학적성시험 (1회)

제 1 교시

언 어 이 해

성명		수험번호							

홀수형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문제유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벌은 흔히 범죄에 대한 보복, 장래 범죄의 억제 및 범죄자의 교화라는 목적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이에 대해 루쉐와 키르쉬하이머는 형벌 일반이라는 관념만으로는 역사 속 제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사회가 실제로 택한 것은 언제나 사형, 신체형, 감옥과 같은 특정한 처분이며 그 처분은 사회가 사람의 몸, 노동과 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형벌의 세기는 범죄의 크기를 비추는 눈금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가 어느 회로에 다시 넣거나 어느 회로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장치이다.

중세의 벌금형은 피해자와 공동체의 화해를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처분이었다. 그러나 재산을 거의 갖지 못한 부랑자와 임금노동자가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면 벌금은 실효성을 잃는다. 하층민에게 부과된 벌금은 납부 능력의 결핍 때문에 처벌이 되지 못하고, 국가는 회초리, 낙인, 공개 처형처럼 몸에 직접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잔혹성은 단순한 야만성의 표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몸 외에는 국가가 압류할 만한 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사정을 드러낸다. 화폐가 처벌을 매개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고통의 공개성과 수치의 전시가 변상과 경고의 기능을 대신한다.

사정은 중상주의적 국가가 숙련 노동력과 규율 잡힌 빈민을 필요로 하면서 달라진다. 국가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없애기보다 그 사람의 시간을 붙잡아 노동으로 바꾸는 시설을 만든다. 구빈원과 교정원은 구제기관과 처벌기관의 경계에 놓였고 수감자의 노동은 시계에 맞춘 작업, 침묵, 감독, 절약이라는 습관을 몸에 새기는 훈련으로 조직되었다. 같은 자유 박탈이라도 교정원의 자유 박탈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생산 과정에 넣을 수 있는 인간으로 가공하는 절차였다. 사형을 집행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손과 팔은 교정원에서 베틀과 작업대에 묶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민간의 생산에 다시 연결된다.

감옥이 근대적 형벌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감옥은 단지 더 인도적인 처분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다. 자유노동이 확산되면 수감자의 강제노동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경쟁할 수 있고 감옥의 생활조건이 빈민의 생활조건보다 나아지면 처벌은 억제력을 잃는다는 우려가 생긴다. 이 때문에 감옥의 처우는 자유 사회의 최하층 생활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 원리와 결합한다. 빈민에게 제공되는 구제 수준이 낮은 임금노동자의 생활보다 나아져서는 안 된다는 구빈제도의 사고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구제와 처벌은 행정상 다른 제도이지만 두 제도는 노동 가능한 빈민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르는 비용을 높이고 노동시장 안의 최저 생활조건을 기준으로 사회의 하한선을 정한다.

이 관점에서 가혹한 형벌과 낮은 범죄율 사이의 직접 관계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어떤 정권은 더 많은 구속과 더 무거운 형을 문명 회복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실형 비율의 증가는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경찰력의 확장, 법원의 태도, 감옥 수용 능력의 증가가 결합한 결과일 수도 있다.범죄율의 하락도 형벌의 가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기 안정, 주거의 확보,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은 형법보다 조용하지만 더 넓은 방식으로 범죄 기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벌의 성공을 주장하려면 처벌 수치와 범죄 수치가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둘을 매개한 사회적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판사나 입법자가 매번 임금표를 보며 형벌을 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루쉐와 키르쉬하이머의 논지는 응보, 책임, 교화 같은 법적 언어가 형벌을 정당화하더라도 그 언어가 실제 제도로 굳어지려면 특정 조건과 맞물려야 한다는 데 있다. 형벌제도는 범죄자의 악행에 대한 사회의 반응일 뿐 아니라 빈민의 몸과 노동력이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어떤 시대의 감옥을 읽는 일은 그 시대의 형법 조문을 읽는 일인 동시에 그 시대의 노동시장과 빈곤정책을 읽는 일이다. 형벌의 역사는 범죄자의 내면을 향한 도덕적 판단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사회가 남는 인구와 필요한 노동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방식 속에서 구성된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벌 제도는 가치중립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산물에 해당한다.

② 중세의 벌금형은 부랑자 처벌에서 화해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③ 교정원의 자유 박탈은 빈민의 시간을 노동 규율로 전환하는 절차였다.

④ 열등처우 원리는 수감자의 생활을 임금노동자보다 낫게 보장하려 했다.

⑤ 구빈제도는 빈민이 노동시장 안에 머무르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감옥과 같은 억제력을 확보하려 한다.

2. ㉠루쉐와 키르쉬하이머의 입장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형 비율의 증가는 판사와 입법자가 범죄자의 책임을 더 엄격히 평가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처벌 완화와 범죄율 상승이 병행될 때 그 관계는 매개 조건을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③ 공개 처형과 낙인은 중세 사회가 범죄 피해의 중대성을 신체적 고통으로 계산하여 환산한 결과이다.
④ 감옥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되 신체형보다 인도적인 근대적 처분이다.
⑤ 경기 안정과 주거 확보가 범죄 기회를 줄인다면, 범죄율 하락은 엄벌보다 빈곤정책의 성과로 설명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은 전쟁 뒤 실업자와 부랑자가 늘자 소액 절도와 노상강도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 대부분이 벌금을 낼 재산이 없었으므로, 초기에는 손등 낙인과 광장 채찍질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후 식민지 농장주들이 노동자 부족을 호소하자, A국은 일정한 절도범에게 사형 대신 14년의 해외 유형을 선고하였다.

계약 상인들은 유형수의 노무청구권을 넘겨받아 식민지에서 팔았고 판사들은 이를 "생명을 보전하며 근면을 배우게 하는 형벌"이라 설명하였다. 식민지와의 전쟁으로 유형이 중단되자 A국은 국내 감옥을 늘렸고, 감옥 생산물의 저가 판매에 장인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외부 판매를 제한하고 수감자 처우를 도시 최하층 임금노동자보다 낮추었다.

① 초기 낙인과 채찍질은 재산 없는 하층민에게 벌금형이 실효성을 잃은 조건과 관련된다.
② 해외 유형은 식민지 노동수요와 노무청구권 거래를 통해 범죄자의 몸과 시간을 생산 회로에 넣은 처분이다.
③ "근면을 배우게 하는 형벌"이라는 판사의 설명만으로는 해외 유형이 제도로 굳어진 조건을 설명할 수 없다.
④ 감옥 생산물 판매 제한과 처우 하향은 강제노동의 자유노동 경쟁 우려 및 열등처우 원리와 부합한다.
⑤ 계약 상인이 유형수의 노무청구권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해외 유형은 화폐로 처벌을 부담한 벌금형의 변형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 학교는 지식을 교과서 속 명제의 배열로 간주하고, 교사는 그 배열을 설명하며 학생은 설명된 배열을 기억하는 존재로 놓인다. 프레네가 문제 삼은 것은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삶에서 떨어져 나온 지식의 성격이었다. 프레네에게 '일하는 인간'은 장래의 직업인을 뜻하지 않는다. 일하는 인간은 흙, 나무, 활자, 동료의 반응처럼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과 한계를 함께 알아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일은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도, 명령받은 과제의 수행도 아니며, 신체의 움직임이 사물의 변화와 공동체의 필요로 이어지는 활동의 형식이다.

프레네는 어린이가 본래 놀이만을 원한다고 보지 않았다. 어린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며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힘을 지니는데, 그 힘이 외부의 목적에 복속될 때 활동은 노역이 되고, 그 힘이 결과 없는 흥분에 머물 때 활동은 오락으로 흩어진다. 프레네가 말한 살아 있는 일은 이 두 극단 사이에 놓인다. 살아 있는 일은 몸의 수고를 요구하지만 몸의 수고가 아이를 소모하지 않고, 규칙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이 아이의 시작점을 앞질러 지배하지 않으며, 산물을 낳지만 산물이 점수표에만 갇히지 않는다. 같은 밭일이라도 교사가 정한 순서를 따라 흉내만 내는 밭일은 수업의 장식이고, 아이가 씨앗의 발아를 기다리며 물과 햇빛의 조건을 바꾸어 보는 밭일은 교육의 재료가 된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경험적 더듬기이다. 경험적 더듬기는 무작정 시행착오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경험적 더듬기는 아이가 먼저 부딪치고, 부딪친 결과가 아이의 다음 시도를 이끌며, 교사는 위험을 줄이는 울타리와 탐색을 지속하게 하는 도구를 배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전통적 수업에서는 법칙이 경험보다 앞서고 예시는 법칙의 확인물로 쓰인다. 프레네의 수업에서는 경험이 먼저 재료와 마찰하고, 법칙은 그 마찰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이름으로 뒤따른다. 아이가 바람 때문에 무너진 종이풍차를 고치려 할 때, 공기의 흐름이라는 말은 이미 겪은 실패를 정리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신체적 일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 프레네가 일의 정신화를 말한 까닭은 손의 성공이 곧 생각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겪은 움직임은 말로 옮겨지고, 말은 글로 고정되며, 글은 다른 아이들의 질문과 수정 속에서 공적인 산물이 되어야 한다. 교실 인쇄기는 이 지점에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교실 인쇄기는 자유롭게 쓴 글을 학급신문으로 바꾸고, 학급신문은 개인의 체험을 공동의 검토 대상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문장은 생활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활을 다시 조직하는 도구가 되며, 지식은 삶을 벗어난 설명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읽는 방식이 된다.

프레네의 협동은 방임과 다르다. 협동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산물이 다른 사람의 일에 들어가므로 서로의 시간을 배려해야 하는 질서이다. 작업계획은 개인의 속도를 인정하지만 개인의 속도가 공동의 흐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학급회의는 교사의 명령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명령의 근거를 함께 따져 보는 장치가 된다. 따라서 프레네의 교실에서 규율은 바깥에서 주입되는 침묵이 아니라 일이 막히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스스로 세우는 조건이다. 아이의 자유는 공동의 필요와 만

날 때 지속되고, 공동의 필요는 아이의 자유를 흡수하지 않을 때 교육적이 된다.

이 관점에서 '삶이 있는 지식'은 반지성주의가 아니며, 노작교육은 손기술 훈련이 아니다. 삶만을 강조하면 학교는 우연한 체험의 모음으로 낮아지고, 지식만을 강조하면 학교는 이미 죽은 결과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굳어진다. 프레네의 대안은 학교를 작은 작업장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곳에서 생활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개념을 부르며, 개념은 다시 생활의 조건을 바꾼다. 교육은 아이를 외부의 노동 질서에 적응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스스로 조직하도록 돕는 일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레네의 일은 외부 목적에 따른 수행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② 경험적 더듬기에서 법칙은 경험의 실패를 정리하는 이름이 된다.
③ 프레네의 협동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이다.
④ 작업계획은 개인 속도를 공동 흐름보다 우선시키는 원리이다.
⑤ 일하는 인간은 학생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세계를 다루며 노동의 가치를 미리 인식하는 데 있다.

5. 윗글의 프레네의 입장에서 **전통적 학교**의 수업 방식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을 명제의 배열로 간주해 암기시키는 방식은 노작교육의 목표인 정교한 손기술 훈련을 달성할 수 없게 한다.
② 교사가 정한 순서대로 법칙을 앞세우는 수업은 규칙이 아이의 시작점을 앞질러 지배하므로 살아 있는 일이 될 수 없다.
③ 쓴 글을 생활의 그림자로 환원하는 것은 일의 정신화를 과도하게 촉진하여 학교를 작은 작업장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④ 체험을 개인의 일로 남겨두는 방식은 지식이 삶이 스스로를 읽는 방식이 되게 만들어 질문이 개념을 부르는 과정을 차단한다.
⑤ 개인의 속도를 배제한 채 공동의 흐름만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무작정 시행착오를 방치하여 활동을 결과 없는 오락으로 전락시킨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초등학교의 학급은 복도에 놓인 컵꽂이가 자주 넘어져 컵이 깨지는 문제를 겪었다. 담임교사는 처음부터 **'무게중심'**이나 **'하중 분산'**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모둠별로 컵꽂이를 새로 만들어 보게 하였다. 다만 모둠마다 **톱과 글루건** 사용 구역을 정하고, 컵꽂이가 넘어지면 이를 작업 기록장에 남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받침의 폭을 넓히거나 삼각형 버팀대를 덧대는 방식으로 다시 제작하였고, 그 뒤 교사는 '무게중심'과 '하중 분산'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각 모둠은 제작 과정과 실패 원인을 **학급 웹진**에 글을 올렸고, 다른 모둠은 평가 의견을 남겼다. 학생들은 그 의견을 반영해 물을 채운 컵으로 다시 실험하고 글을 수정하였다.

컵꽂이 전시회의 '가장 보기 좋은 컵꽂이' 심사를 위해 나래 모둠은 버팀대를 색종이로 가렸다. 그 결과 컵꽂이는 더 깔끔해 보였지만, 물을 채운 컵을 올렸을 때 이전보다 쉽게 넘어졌다.

① 학생들이 복도의 컵꽂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장래의 직업 훈련이라기보다, 사물의 저항과 공동체의 필요를 다루는 프레네의 일하는 인간에 가까운 활동이다.
② 교사가 **무게중심과 하중 분산**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실패를 기록하게 한 것은 경험이 법칙보다 앞서는 경험적 더듬기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③ **톱과 글루건** 사용 구역을 정한 것은 학생의 탐색을 대체하는 명령이라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울타리와 탐색을 지속하게 하는 도구를 배치한 것이다.
④ 제작 과정과 실패 원인을 **학급 웹진**에 올리고 다른 모둠의 의견을 반영해 글과 실험을 수정한 것은, 손의 활동을 공적인 산물로 만드는 일의 정신화에 해당한다.
⑤ 나래 모둠이 버팀대를 가린 것은 아이의 자유가 공동의 필요와 만난 살아 있는 일에 해당한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극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고 말할 때, 무대는 행위가 드러나는 좌표이고 무대 밖은 행위가 아직 보이지 않거나 더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이때 무대 밖은 빈 공간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 인물의 기억, 관객의 기대가 보내 오는 압력의 장소이다. 고대 제의극에서 무대는 일상의 모사보다 신의 출현을 받아들이는 경계였고, 관객은 배우의 몸을 통해 인간의 시야를 넘어선 질서를 감지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결핍이라기보다 보이는 장면이 자기 의미를 얻는 배후였으며, 전언자의 말과 합창단의 노래는 그 배후를 현재의 사건처럼 호출했다. 이때 행위의 직접적 모방인 미메시스는 눈앞의 행위를 조직하고, 이야기의 간접적 서술인 디에게시스는 눈앞에 없는 사건을 언어의 시간으로 배치한다.

르네상스 이후 인본주의가 고대 시학을 되살렸을 때, 프랑스 극장은 무대 밖을 제도화된 절제의 장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7세기 고전극의 삼단일은 하나의 장소 혹은 행동, 하루 안의 시간을 요구했지만 욕망, 전쟁과 살해는 그 좁은 틀 안에 모두 놓일 수 없었다. 적합성과 그럴듯함의 규범은 피 흘리는 장면이나 난전의 소음을 뒤편으로 밀어냈고, 전언자는 관객에게 보지 못한 사건을 듣게 함으로써 장면의 평온과 사건의 격렬함을 동시에 유지했다. 코르네유의 『르 시드』 논쟁에서 무대 밖은 규칙을 어긴 흔적이 아니라 규칙이 감당하지 못한 정치적 명예와 사적 사랑의 초과분이었다.

몰리에르의 희극에서 ㉠**무대 밖**은 비극적 사건을 감추는 장소라기보다 집 안팎을 나누는 문턱으로 기능한다. 방 안의 대화는 문, 창, 복도, 거리에서 오는 시선 때문에 흔들리고, 어린 여성 아네스를 세상과 격리해 통제하려는 늙은 후견인 아르놀프의 감금 논리는 젊은 인물들의 방문과 퇴장을 통해 계속 실패한다. 『아내들의 학교』의 폐쇄된 집은 사회적 교환을 차단하려는 장치이지만, 그 집은 바로 그런 차단 때문에 더 많은 소문과 오해를 끌어들인다. 『인간혐오자』의 궁전과 법정, 그리고 광야의 대립도 같은 문제를 드러내는데, 알세스트가 도망치고자 하는 바깥은 실제 장소라기보다 사교적 언어에서 벗어나려는 불가능한 요청이다.

18세기 계몽주의의 부르주아 드라마는 무대 밖을 일상의 인과관계로 바꾸었다. 디드로가 중시한 회화적 장면은 인물이 말하기 전에 몸짓과 배치로 가족의 갈등을 보여 주며, 관객은 닫힌 방의 한쪽 벽이 우연히 사라진 것처럼 사적 생활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밖은 영웅적 사건의 저장고가 아니라 직업, 상속, 혼인, 교육 같은 생활 조건이 누적되는 연속적 세계이다. 무대는 그 세계의 일부만을 잘라낸 표면이므로, 관객은 보이는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생활사를 끊임없이 보충해야 한다.

19세기 낭만주의 드라마는 고전극이 무대 밖으로 밀어낸 과잉을 되찾으려 했지만, 낭만주의 드라마가 모든 것을 물리적인 무대 위로 올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무대 위로 소환하고자 했던 방대한 시공간과 감정의 격랑은 번번이 당대 극장의 물질적 한계에 부딪혔고, 그 결과 낭만주의는 '무대 밖'의 무한한 영역을 아예 독자의 상상 속으로 끌어들여 펼쳐내는 역설적 시도를 보여 주기도 했다. 뮈세의 '안락의자에서 보는 연극'은 실제 극장의 장치보다 독자의 상상 속 장면 전환에 더 많은 권한을 주었고, 『마리안의 변덕』의 등·퇴장은 사랑의 심리보다 도시의 우발적 접촉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로렌자치오』에서 카니발의 무대는 군중의 가면과 정치적 음모를 한꺼번에 드러내지만, 역사의 결정적 방향은 언제나 장면 바깥에서 인물의 선택을 압박한다.

20세기 연극에서 무대 밖은 더 이상 무대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보조 공간으로만 남지 않는다. 콜테스의 항구나 귀환의 집은 특정한 주소를 갖지만, 그 장소들은 이민자, 가족, 식민의 기억, 거래의 언어가 서로를 비껴 가는 비장소 또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에 가깝다. 인식 주체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시각에서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지평을 동반하므로 무대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조명 속 사물의 윤곽이 아니라 그 윤곽을 둘러싼 부재의 압력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공간은 공연의 주변부가 아니라 지각과 해석의 규칙을 바꾸는 중심 장치이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디에게시스는 배우의 몸짓으로 신적 질서를 재현한다.
② 17세기 고전극의 삼단일은 전쟁과 살해를 무대 위에 수용한다.
③ 고대 제의극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보이는 장면이 의미를 얻는 배후로 기능하였다.
④ 뮈세의 연극관은 실제 극장 장치의 전환 능력을 중시한다.
⑤ 콜테스의 장소들은 특정 주소로 환원되는 사실적 공간이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내들의 학교』에서 폐쇄된 집은 사회적 교환을 차단함으로써, 비롯되는 소문과 오해를 무대 위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다.
② 『인간혐오자』에서 알세스트가 도망치고자 하는 것으로 사교적 언어의 규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실제 장소로서 궁전과 법정에 대립하는 공간이다.
③ 아르놀프의 감금 논리에서 비극적 사건을 감추는 은폐의 공간으로 규정되고, 젊은 인물들의 퇴장을 유도하여 규칙을 어긴 흔적을 지우려 한 결과이다.
④ 집 안팎을 나누는 문턱으로 기능하며, 무대 안의 대화가 외부 시선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통제에 실패하게 하는 곳이다.
⑤ 코르네유의 『르 시드』 논쟁에서, 늙은 후견인의 정치적 명예와 사적 사랑의 초과분을 감당하기 위해 고안된 절제의 장치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 연출가 A는 새로운 연극 『경계의 방』을 무대에 올렸다. 무대 위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 구현되어 있고, 극이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배우들은 단 한 번도 방을 떠나지 않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관객들은 극 내내 무대 밖 스피커를 통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민자들의 웅성거림, 항구의 뱃고동 소리,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폭격음을 듣게 된다. 이 소리들은 방 안 배우들의 대화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비껴가지만, 극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들은 방 안의 평온한 대화에서 오히려 강렬한 불안감과 모순을 느끼게 된다.

① 17세기 고전극의 규범을 따르는 평론가는, 무대 밖의 폭격음이 전언자를 통해 방 안의 배우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공연이 규범을 충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② 18세기 디드로의 관점을 따르는 평론가는, 이민자들의 웅성거림과 뱃고동 소리를 방 안 인물들의 일상적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연속적 세계의 표면으로 이해할 것이다.
③ 19세기 낭만주의 평론가는, 극 후반부에 관객이 느끼는 강렬한 불안감이 무대 밖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폭격 상황을 무대 위로 직접 소환한 미메시스의 결과라고 평가할 것이다.
④ 20세기 콜테스 연극 관점의 평론가는, 스피커의 소리들은 특정한 주소를 지시하기보다 기억과 언어가 서로 비껴가는 헤테로토피아로서 방 안의 대화를 압박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 고대 제의극의 관점을 따르는 평론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은 질서의 결핍을 증명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존 컴퓨터의 비트는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처럼 어느 순간에도 0 또는 1 가운데 하나의 값으로 다루어진다. 프로그램은 이 값들을 복사하고 비교하고 지우면서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며, 여러 후보 중 정답을 찾을 때도 후보를 차례로 검사하거나 무작위로 일부를 뽑아 본다. 양자컴퓨터의 큐비트도 측정하면 0 또는 1로 읽히지만, 측정되기 전의 큐비트는 두 가능성이 함께 들어 있는 상태로 표현된다. 다만 이 말은 큐비트 안에 두 값이 몰래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큐비트의 상태에는 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나중에 다른 상태와 만나 더해지거나 지워질 수 있는 방향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

양자 계산은 이 방향 정보를 이용한다. 여러 큐비트를 준비하면 가능한 비트열들이 하나의 상태 안에 함께 나타나지만, 마지막 측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중 하나의 비트열뿐이다. 그러므로 양자컴퓨터가 빠른 까닭을 모든 후보를 동시에 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오해가 생긴다. 양자컴퓨터는 중간에 후보들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정답에 해당하는 후보의 가능성은 커지고 정답이 아닌 후보들의 가능성은 서로 약해지도록 연산을 배열한다. 측정은 계산의 끝에서만 유용하며, 측정이 너무 일찍 이루어지면 함께 유지되던 가능성들의 관계가 깨져서 양자 계산의 이점도 사라진다.

이러한 계산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장치가 오라클이다. 오라클은 어떤 후보를 넣으면 그 후보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려 주는 검사 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 컴퓨터에서 검사 상자는 후보 하나를 넣을 때마다 그 후보에 대한 답만 돌려준다. 양자 회로에서 오라클은 후보들의 묶음 상태를 한꺼번에 통과시키되, 검사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의 표시만 살짝 바꾸어 놓는다. 이 표시는 책갈피처럼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상태의 부호나 방향을 바꾸는 흔적이므로, 그 흔적은 뒤따르는 연산에서만 차이를 만든다.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은 검사 상자의 전체 성격을 묻는 문제를 다룬다. 어떤 스위치가 여러 입력에 대해 항상 같은 불을 켜는지, 아니면 입력의 절반에서는 켜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끄는지가 미리 둘 중 하나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자. 기존 컴퓨터는 최악의 경우 절반보다 하나 더 많은 입력을 확인해야 두 경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양자 절차는 모든 입력을 하나씩 읽는 대신, 먼저 입력들이 함께 놓인 상태를 만들고 오라클이 남긴 표시를 한 번 받아낸 다음, 표시들이 서로 보강되는지 상쇄되는지를 보게 한다. 표시가 모두 같은 방향이면 특정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표시가 절반씩 갈라지면 그 결과가 사라지므로 한 번의 검사만으로 두 부류를 가를 수 있다.

그로버 알고리즘은 성격 판별보다 익숙한 찾기 문제에 가깝다. 정렬되지 않은 명단 속에서 조건에 맞는 한 항목을 찾는 경우, 기존 컴퓨터는 대체로 많은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그로버 알고리즘에서 오라클은 정답 항목의 표시만 뒤집고, 이어지는 확산 연산은 전체 후보들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표시가 뒤집힌 후보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 두 연산을 반복하면 정답 후보의 측정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 그러나 반복이 많을수록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상태가 정답 쪽을 지나쳐 다시 멀어질 수 있으므로 알맞은 횟수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도이치-조사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의 차이는 양자컴퓨터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전자는 개별 답들을 모으기보다 검사 상자의 전체 무늬가 같은지 갈라지는지를 판별하고, 후자는 정답 여부의 작은 표시를 여러 차례 누적하여 특정 후보를 두드러지게 한다. 두 경우 모두 양자컴퓨터는 후보들을 몰래 모두 읽어 낸 것이 아니라, 측정 전에 부호와 방향의 관계를 조정하여 마지막에 필요한 구분만 남긴다. 기존 컴퓨터가 값의 확정성과 복사 가능성에 기대어 계산한다면, 양자컴퓨터는 측정 전 상태의 관계를 유지하고 간섭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일부 문제에서 다른 길을 연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u>않는</u> 것은?

① 큐비트 상태에는 결과 가능성과 방향 정보가 함께 있다.
② 양자 오라클은 조건 만족 후보의 부호나 방향을 바꾼다.
③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은 검사 상자의 전체 성격을 가른다.
④ 그로버 알고리즘은 확산 연산으로 정답 후보를 두드러지게 한다.
⑤ 큐비트의 중간 측정은 후보 간 관계를 보존해 계산 이점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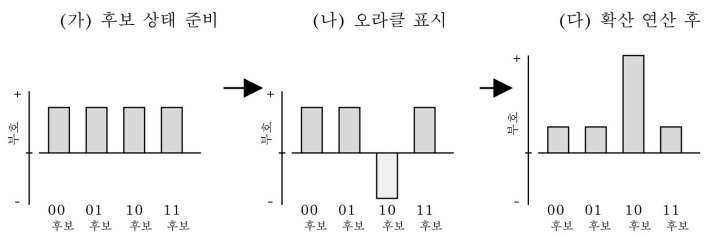
11. 도이치-조사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은 오라클이 정답 항목의 표시를 뒤집는 과정을 여러 차례 누적하여 측정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② 그로버 알고리즘에서 확산 연산은 입력들이 함께 놓인 상태의 표시들이 서로 보강되는지 상쇄되는지를 한 번의 검사로 가르는 역할을 한다.
③ 도이치-조사 알고리즘은 개별 답을 찾기 위해 검사 상자의 전체 무늬를 살피는 반면, 그로버 알고리즘은 상태가 정답 쪽을 지나쳐 멀어질 수 있으므로 연산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두 알고리즘 모두 계산 중간에 검사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으며, 측정 전에 부호와 방향의 관계를 조정하여 마지막에 필요한 구분을 남긴다.
⑤ 기존 컴퓨터가 모든 입력을 하나씩 읽는 것과 달리, 두 알고리즘 모두 최악의 경우 입력의 절반보다 하나 더 많은 횟수의 오라클 통과를 요구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큐비트가 만들 수 있는 네 후보 상태 00, 01, 10, 11이 같은 가능성으로 준비된 뒤, 정답 후보 10에 대해 오라클과 확산 연산이 작용하는 과정을 단순화한 것이다. 막대의 위아래 방향은 각 후보 상태의 부호를, 막대의 높이는 마지막 측정에서 그 후보가 두드러질 정도를 나타낸다.



① (나)에서 오라클은 정답 후보를 화면에 출력하여 나머지 후보를 제거한다.
② (나)의 부호 변화는 뒤따르는 확산 연산에서만 의미를 가지므로, 표시 자체가 곧 최종 답은 아니다.
③ (다)에서 네 후보의 막대가 모두 같은 높이가 되었으므로, 양자 계산의 이점은 사라졌다.
④ (가)에서 네 후보가 함께 놓였다는 것은 각 후보의 결과를 이미 개별적으로 읽었다는 뜻이다.
⑤ (다)의 변화는 측정을 중간마다 반복할수록 후보들의 관계가 더 잘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염상섭의 정치적 위치를 좌익과 우익 사이의 가운데 자리로만 설명하면, '횡보(橫步)'는 어느 쪽에도 자신을 맡기지 못한 주저의 이름이 된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염상섭이 반복하여 문제 삼은 자유의 성격을 놓친다. 염상섭에게 자유는 개인이 국가 바깥에서 소유하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식민지적 지배와 세계질서의 불균형 속에서 민족이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존되는 규범이었다. 따라서 염상섭의 이동은 좌표 위의 중간점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할 제도적 조건 사이를 왕복하며 서로를 검증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만세 전'을 폐허의 시간으로 의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폐허란 단순한 절망의 정서가 아니라, 개인이 제국의 법과 자본의 질서, 문단의 유행어 속에서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상태를 가리킨다. 염상섭은 만세 이후의 소설에서 세계대전 뒤에 유행한 감상적 휴머니즘을 경계하였다. 감상적 휴머니즘은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내세우지만, 고통을 낳는 국가 간 위계와 식민지의 권리 문제를 흐리기 쉽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민족자결을 추상적 구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유의 원칙이 주권국가와 세계질서의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물음으로 바꾸었다.

염상섭의 물음은 세 가지 근대의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아메리카니즘이 개인의 자립을 경쟁과 소비의 능력으로 좁히고, 소비에티즘이 사회적 평등을 단일한 조직 원리에 종속시키며, 대일본제국주의가 문명의 보편성을 앞세워 식민지의 정치적 자율성을 빼앗을 때, 세 모형은 서로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인간을 한 가지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염상섭은 이 환원을 거부하기 위해 개인주의, 사회주의, 민족공동사회를 나란한 선택지로 세우지 않았다. 염상섭은 세 항목을 유리된 개인이 다시 공적 세계의 구성원으로 짜이는 과정의 서로 다른 층위로 배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시장과 가족의 바깥에서 개인을 억누르는 장치도 아니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는 사적 결사들의 합도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규칙을 자신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형식이고, 시민사회는 국가가 추상적 명령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일상의 협의와 책임을 발생시키는 장이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사회는 혈통이나 언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유 개체가 문화적 개성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의 정치적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결합 방식으로 이해된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말은 개인을 국가에 흡수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민의 자유가 세계질서와 만난다는 말도 민족을 국제정치의 하위 단위로 낮춘다는 뜻이 아니다.

염상섭 소설에서 이러한 결합은 논설처럼 완결된 주장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사랑과 죄』의 허무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이심』의 인격과 국가, 『광분』의 중산층과 민중, 『삼대』의 세 대들은 모두 개념을 인물의 선택과 실패 속으로 밀어 넣는 장치이다. 인물이 어떤 이념을 말하는가보다, 그 이념이 가족관계·재산관계·식민지 권력과 부딪힐 때 어떤 균열을 드러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소설은 이미 완성된 생각을 꾸미는 외피가 아니라, 생각이 현실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찾아가는 시험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횡보'를 절충으로 읽는 독자는 염상섭이 왜 서로 다른 진영의 언어를 차례로 빌리면서도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염상섭의 '횡보'는 양쪽의 장점을 조금씩 취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 이념이 약속한 해방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지배로 변하는지를 드러내고,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자결, 사회의 평등과 세계의 평화를 서로의 제한 조건으로 세우는 방식이다. 이때 문학은 정치사상의 전달로 축소되지 않고, 정치가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구체성을 사유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염상섭의 소설을 읽는 일은 한 작가의 이념 성향을 분류하는 일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를 다시 짜는 절차를 추적하는 일이 된다.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횡보는 이념의 중간선보다 자유의 조건을 따지는 이동이다.
② 감상적 휴머니즘은 민족자결을 권리 문제로 구체화했다.
③ 소비에티즘은 개인의 자립을 소비 능력으로 좁혔다.
④ 국가는 일상의 협의로 명령의 추상화를 막는 장이다.
⑤ 민족공동사회는 문화적 개성보다 동일 혈통을 우선한다.

14. 윗글에 나타난 '**횡보**'와 '**폐허**'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횡보'를 좌우 진영의 장점을 각각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독자는, 염상섭이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란한 선택지로 보지 않고 원자화된 개인이 다시 조화되는 층위임을 간과한다.
② 염상섭이 '만세 전'을 '폐허'로 의식한 것은, 제국의 법과 자본의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식민지의 개인이 스스로를 설명할 추상적 구호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③ '횡보'는 시민사회를 국가의 억압적 장치에 대항하는 보루로, 개인의 자유가 공동의 규칙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부하는 움직임이다.
④ '폐허'에서 염상섭이 감상적 휴머니즘을 비판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구체성을 사유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문학 고유의 형식을 정치사상의 전달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⑤ '횡보'는 각 이념이 약속한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평화를 제한 조건에서 제외하여 이념의 균열을 봉합하는 방식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만세전』에서 이인화는 개인의 감상이나 연애 문제만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식민지의 제도와 자본 질서가 사람들의 말과 몸짓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의식한다. 그는 현실을 묘지처럼 느끼는 짧은 탄식으로 드러내지만, 그 탄식은 단순한 절망이라기보다 자신을 설명할 공적 언어가 사라진 상태를 향한다. 장면 속 인물들은 민족, 자유, 생활의 문제를 추상적 구호로 정리하지 못하고 기차, 항구, 도시의 이동 속에서 서로 어긋난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부딪힌다.

① 현실을 묘지처럼 느끼는 탄식은 식민지의 권리 문제를 흐리는 감상적 휴머니즘에 머무르므로, 염상섭이 경계한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동 속에서 인물들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어긋나는 것은, 완성된 정치사상을 장식하는 외피로 기능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이인화가 개인의 감상만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염상섭에게 자유가 사적 권리가 아니라 세계질서 속에서 민족이 스스로를 구성할 조건과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④ 민족과 생활의 문제가 추상적 구호로 정리되지 않는 것은, 아메리카니즘·소비에티즘·대일본제국주의 중 하나가 선택된 결과이다.
⑤ 소설 인물들이 식민지 제도와 자본 질서의 압력을 의식하는 것은, 문학이 순수한 미적 형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준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후의 법사상사에서는 나치 체제를 흔히 도덕과 분리된 법의 극단으로 설명해 왔다. 법관과 관료가 규범의 내용은 묻지 않은 채 제정 절차와 명령 계통만 확인했기 때문에, 잔혹한 조치도 일단 성립한 법규라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복종의 기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수의 엘리트 법률가가 왜 단순한 침묵을 넘어 민주주의 해체의 이론가와 실무자가 되었는지, 또 왜 스스로를 범죄의 협력자가 아니라 질서의 수호자로 이해했는지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

이 점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견해는 나치의 법을 무도덕한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도덕을 법 전체에 주입한 체계로 본다. 여기서 도덕은 인간 일반의 존엄이나 상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보존·정화·통일을 최고선으로 삼는 정치적 윤리였다. 그러므로 법의 정당성은 보편 규칙의 공정한 적용에서 나오지 않고, 공동체의 생존을 증진하는가에서 판정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자에게 가해진 배제와 박탈은 불의가 아니라 책무처럼 제시될 수 있었다.

법률가의 임무도 권력의 한계를 그리는 일보다, 국가가 주장하는 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화하는 일로 재정의되었다. 이때 개인의 양심은 독립적 판단의 원천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충성의 다른 이름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법형식의 파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치 법률가들은 기존의 법개념을 새로운 가치 축으로 재배열했다.

'국민', '공공복리', '건전한 법감정'과 같은 개방적 표현은 재판관과 행정관이 이념적 목적을 판결의 내부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다. 법문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를 고정하던 외적 한계가 사라지자, 해석은 규칙의 적용이면서 동시에 체제의 도덕을 실현하는 행위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재량의 확대는 법치의 후퇴인 동시에 도덕화의 심화였다. 다시 말해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선이**라는 두 언어는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보강했다.

엘리트 법률가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의회정치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느린 기술이라면, 나치가 약속한 것은 분열을 제거하고 국가 의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시키는 통일의 질서였다. 이 질서 아래에서 법률가는 중립적 기술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해석하는 지적 지도층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법의 자율성을 포기한 대가로 정치 권력에 예속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체제의 목적을 번역하는 특권적 해석자로서 새로운 권능도 획득했다. 전문성의 언어와 정치적 열정이 분리되지 않았기에, 복종은 곧 자기 실현의 형식이 되었다.

문제는 법과 도덕의 결합 자체가 아니라, 어떤 도덕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있다. 도덕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독점되면 법은 더 이상 권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언어가 된다. 이때 권리는 인간에게 귀속되는 지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 조건부로 부여되는 자격으로 바뀌며, 예외조치는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질서 유지의 상시 장치가 된다. 제도는 남아 있어도 그 제도를 비판적으로 가동하게 할 외부 척도는 소멸한다. 그리하여 법원과 행정기관은 통제 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자기확인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나치 법질서가 남긴 교훈은 법은 도덕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다. 법이 정치로부터 독립하려면 도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단 하나의 선만을 법의 전부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 밖에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다수의 규범 원천, 그리고 그 판단을 제도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저항의 통로가 유지될 때에만 법은 권력의 명령문이 아니라 권력을 한정하는 질서로 남는다. 나치 법률가들의 궤적은 법의 붕괴가 무규범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잉의 도덕이 과잉의 정치와 결합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6. 윗글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나치 법질서에서 '공공복리'는 권력 제한보다 이념 실현에 가까운 기준이 되었다.
② 엘리트 법률가에게 복종은 전문성을 포기하는 일보다 자기 권능을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③ 민족 공동체의 보존을 최고선으로 삼을수록 공동체 밖의 배제는 의무처럼 정당화될 수 있었다.
④ 법문과 재판 제도의 존속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심사할 외부 척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⑤ 나치 법질서에서 권리는 공동체 귀속성에 기대어 재편되었다.

17. 윗글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선**의 관계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 합법성이 유지될수록 체제의 도덕이 법해석에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든다.
② 나치 법질서에서는 법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방적 표현이 통로가 되어 두 언어가 서로 보강하였다.
③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선은 서로 배제되므로 나치 법률가들은 법형식을 폐기해야 했다.
④ 실질적 선은 인간 일반의 권리를 보호하는 외부 척도로 작동하여 권력의 한계를 그었다.
⑤ 재량의 확대는 법치의 회복을 뜻했지만 도덕화의 약화와는 무관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X국 최고법원의 수석판사A는 최근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우리 국가가 직면한 비상한 위기 속에서, 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국가 안보'나 '사회적 유해성'이라는 단어들은 낡은 자유주의적 잣대로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텍스트 자체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헌법의 모든 조문은 위대한 영도자가 선언한 '국가 통일과 정화'라는 최고의 도덕적 요청에 맞추어 생명력 있게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비판자들의 기본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법관의 신성한 책무이다. 우리는 법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하수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적 해석자이다."

갑: A가 형법의 텍스트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통일과 정화'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나치 법률가들이 선을 제도화했던 방식과 대비되는군.

을: A가 체제 비판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불의가 아닌 법관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권리가 보편적 권리에서 조건부 자격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병: A가 '국가 안보'와 같은 표현을 영도자의 요청에 맞추어 해석한 것은, 외부의 통제 장치로서 다수의 규범 원천을 판결 내부로 끌어들인 결과이군.

정: A가 자신을 기계적 하수인이 아니라 창조적 해석자로 인식한 것은, 법률가가 법의 자율성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권능을 획득한 자기 실현의 상태군.

① 갑
② 을, 정
③ 갑, 을, 병
④ 을, 병, 정
⑤ 갑, 병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스틱의 역사를 ㉠단순한 대체재의 역사로만 읽는 입장은 베이클라이트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다. 셀룰로이드는 상아나 거북등을 흉내 내기 위해 자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를 변형한 물질이었지만, 베이클라이트는 자연물의 무늬보다 분자의 결합 방식을 먼저 계산한 물질이었다. 셀룰로이드의 성공이 닮음의 정도에 기대었다면, 베이클라이트의 성공은 원료가 반응한 뒤 어떤 내부 질서를 갖는지에 기대었다. 베이클라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두 출발 물질이 각각 어떤 모양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두 물질이 만나면서 몇 갈래로 이어질 수 있는가이다.

페놀에는 다른 분자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곳 있고, 포름알데하이드는 그 자리들 사이에 짧은 연결 조각을 놓을 수 있다. 페놀 한 분자가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이에 두고 다른 페놀과 이어지면 작은 묶음이 생기지만, 같은 일이 여러 방향에서 되풀이되면 묶음은 긴 줄을 넘어 촘촘한 그물로 바뀐다. 베이클라이트의 단단함은 어떤 한 결합이 유난히 강해서 생기는 성질이 아니라, 많은 연결이 서로를 붙잡아 전체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다. 이 점에서 베이클라이트는 원료의 이름보다 연결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재료이다.

이 연결 방식은 반응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중간 단계를 거친다. 포름알데하이드가 비교적 적고 산성 조건이 주어지면 선처럼 이어진 노볼락이 먼저 생기며, 노볼락은 경화제를 더해야 최종적으로 굳는다. 반대로 포름알데하이드가 충분하고 염기성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굳어 갈 수 있는 레졸이 만들어진다. 같은 페놀과 포름알데하이드라도 두 물질의 비율과 주변 조건이 달라지면, 수지는 처음부터 굳는 물질이 아니라 언제 흐르고 언제 멈출지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된다. 이 차이는 실험실의 명칭 차이에 머물지 않고, 공장에서 어느 시점에 금형을 채우고 어느 시점에 가열을 끝낼지까지 정한다.

성형 공정에서 이 시간 조절은 결정적이다. 완전히 굳기 전의 수지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금형의 빈틈을 채우지만, 경화가 지나치게 진행된 수지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한다. 베이클라이트의 제조는 물질을 먼저 완성한 뒤 모양을 깎아 내는 과정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단계에서 모양을 부여하고 이어서 결합망을 닫아 그 모양을 고정하는 과정이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사슬들이 서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다시 부드러워지지만, 열경화성 수지인 베이클라이트는 경화가 끝난 뒤 사슬 사이가 공유 결합으로 묶여 하나의 큰 덩어리에 가까워진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베이클라이트는 전기 스위치, 전화기 외피, 라디오 부품처럼 열과 전기가 함께 문제 되는 물건에 쓰일 수 있었다.

베이클라이트 제품에는 목분이나 섬유질 같은 충전재가 함께 들어가곤 했다. 충전재는 단순히 부피를 늘리는 값싼 재료가 아니라, 수지가 굳을 때 생기는 수축과 균열을 줄이고 충격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 내부 골격으로 기능했다. 페놀 수지의 결합망은 충전재를 붙잡는 접착상이고, 충전재는 결합망이 실제 물건의 형태로 버틸 수 있게 하는 보강상이다. 그러므로 베이클라이트의 성능은 페놀 수지 자체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반응으로 생긴 망과 그 안에 배치된 입자·섬유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 관계를 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평가는 한 방향으로 고정될 수 없다. 베이클라이트의 돌이킬 수 없는 결합은 금속보다 가볍고 세라믹보다 잘 깨지지 않는 절연 부품을 가능하게 했지만, 같은 결합은 사용 후 물질을 원료로 되돌리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베이클라이트의 과학적 원리는 재료의 장점과 폐기 단계의 난점이 서로 무관한 두 성질이 아니라 같은 구조에서 갈라져 나온 결과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어떤 플라스틱을 판단하려면 그 물질이 무엇을 대신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결합을 통해 어떤 기능을 얻었고 그 결합이 사용 이후 어떤 제한으로 돌아오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셀룰로이드는 분자 결합 방식을 계산한 합성 수지이다.
② 노볼락은 염기성 조건에서 생겨 스스로 경화된다.
③ 레졸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적을 때 선형으로 먼저 생긴다.
④ 충전재는 페놀 수지의 결합망을 대신하는 접착상이다.
⑤ 베이클라이트는 유동 단계에서 성형한 뒤 결합망을 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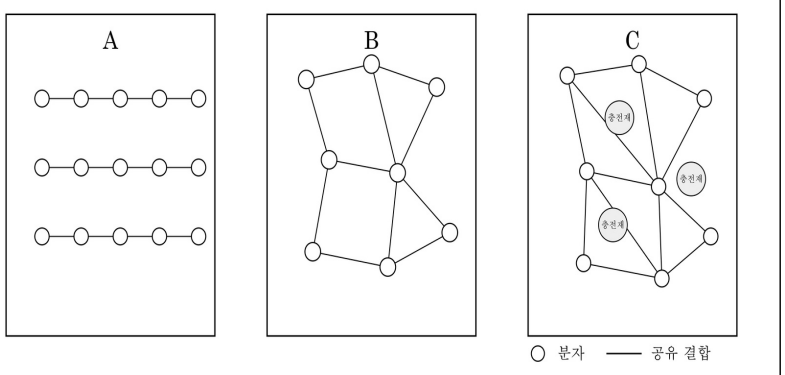
20.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셀룰로이드가 상아나 거북을 흉내 낸 사실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자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를 변형한 물질을 과소평가한다.
② 베이클라이트의 성능을 원료의 모양 차이에서 찾음으로써, 두 출발 물질이 동일한 비율로 반응해야 노볼락과 레졸이 생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베이클라이트가 무엇을 대신했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가역적 결합이 기능과 폐기상의 제한을 함께 낳는다는 점을 포착하지 못한다.
④ 베이클라이트를 금속이나 세라믹의 대체재로 보지 않음으로써, 열과 전기가 필요한 부품에 사용되는 실용적 의의를 간과한다.
⑤ 플라스틱의 가치를 재활용 가능성에만 두어, 베이클라이트가 경화 후에 다시 부드러워지는 열가소성 수지라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21. 윗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그림>



ㄱ. A는 사슬 연결이 아직 여러 방향으로 닫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화된 뒤에도 반복 가열을 통해 재성형될 수 있다.

ㄴ. B는 사슬 사이의 연결이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어 전체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베이클라이트가 경화 뒤 원료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ㄷ. C의 충전재는 수지의 결합망 일부를 끊어 성형 중 흐름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화 뒤 제품의 충격 저항을 높인다.

ㄹ. A에서 B, B에서 C로의 변화는 각각 반응 조건에 따른 결합망 형성과, 그 결합망이 실제 제품 형태로 버티도록 하는 보강 구조의 도입에 해당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⑤ ㄴ,ㄷ,ㄹ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집적지는 기업들이 가까이 몰려 있는 상태라기보다, 생산 과정의 일부가 장소를 매개로 서로를 조건 짓는 배치에 가깝다. 부품업체와 조립업체가 가까우면 운송 시간이 줄고 납기 조정이 쉬워지며, 숙련공이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닐 수 있어 개별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내부에서 모두 길러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만으로 특정 지역의 성패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같은 고속도로와 비슷한 임대료를 가진 두 산업단지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면, 거리는 비용을 낮추는 조건일 뿐 그 조건이 실제 협업으로 바뀌는 통로는 따로 물어야 한다.

㉠신고전파적 입지 설명은 기업을 비용 표에 반응하는 단위로 놓고, 지대·임금·운송비·세제 혜택의 조합이 더 유리한 장소가 선택된다고 본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완성차 공장 주변으로 모여든 초기를 보면 이 설명은 힘을 가진다. 완성차 회사가 범퍼나 와이어링 하니스를 자주 주문하고, 하청업체가 불량품을 바로 회수해야 한다면 가까운 입지는 재고와 이동의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임금과 지대가 상승했는데도 업체들이 떠나지 않거나, 더 싼 부지를 제공한 다른 지역의 단지가 활력을 얻지 못한다면, 비용 비교만으로는 남아 있음과 실패를 동시에 해명하기 어렵다.

㉡거래비용의 관점은 이 난점을 일부 보완한다. 외주 계약은 가격을 쓰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상대를 찾고, 품질 기준을 합의하고, 사후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금형이나 시험장비처럼 특정 고객에게 맞춘 투자가 들어가면 계약 이후 한쪽이 약속을 바꾸는 위험이 커진다. 가까운 업체들이 반복 거래를 하며 서로의 공정 능력과 지급 습관을 알고 있다면 감시 비용은 낮아지고, 숙련 노동자가 이직하면서 전한 작업 요령은 새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다만 반복 거래가 곧 신뢰를 낳는 것은 아니며, 지역 관행이 약탈적 납품 단가 인하를 묵인한다면 근접성은 협력이 아니라 종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

전자산업 클러스터에서 새 회로 기판의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자. 납품업체의 기술자가 원청 연구소와 지역 대학 실험실을 하루 안에 오가며 원인을 찾고, 전 직장 동료였던 장비업체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시험 조건을 알려 주면 문제 해결은 공식 계약서보다 빠른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이때 확산되는 것은 도면에 적힌 정보만이 아니라 어떤 오차를 심각한 결함으로 보는지, 누구의 경험을 믿어도 되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소의 말투, 동문 관계, 작업장 평판 속에서 익혀진다. 반대로 같은 판단이 굳어지면, 액정 패널에서 전장 부품으로 수요가 옮겨갈 때 기존 공정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확인해 주며 뒤처진 기술을 계속 붙잡는 집단적 고착이 생긴다.

㉢제도주의 경제지리학은 여기에서 지방정부, 대학, 노동조합, 금융기관, 협회, 비공식 거래 관습을 배경 장식이 아니라 생산 질서의 일부로 본다. 지방정부가 공동 연구소 건물을 제공하고, 대학이 중소기업의 시험 데이터를 논문 성과와 연결하며, 노동조합이 숙련 전환 교육을 임금 협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연구개발 위험은 개별 업체의 부담에서 지역적 부담으로 분산된다. 하청 네트워크에서 명절 전 대금 결제를 앞당기는 관행이나 품질 사고 때 먼저 수리하고 책임은 뒤에 따지는 관행도 법적 계약과 구별되지만 계약의 작동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성공한 클러스터 정책을 다른 도시로 옮기는 일은 건물과 보조금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공개되어 있고 어떤 약속이 암묵적으로 지켜지는지를 다시 짜는 일이다.

외부 충격은 집적지의 성격을 드러낸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세계 수요의 급락이 닥쳤을 때, 어떤 지역은 남은 부품업체와 대학 연구자가 기존 설비를 의료기기나 전기차 부품에 맞게 바꾸며 재구성되지만, 어떤 지역은 주력 기업을 향한 납품 질서와 보조금 배분 방식이 새 진입자를 밀어내면서 쇠퇴한다. 전자의 경우 성공은 시장 효율의 결과만도 아니고 지역 문화의 미덕만도 아니다. 임대료와 운송비는 만남의 빈도를 만들고, 관습과 조직은 그 만남을 협업이나 착취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게 한다. 따라서 산업집적의 원인을 묻는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소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두 층위가 서로의 효과를 어떻게 증폭하거나 무력화하는지를 밝히는 문제이다.

22. 윗글에서 설명하는 '산업집적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지비와 인건비가 올라도 입주 기업이 남는 현상은 공간적 인접의 필요가 사라졌음을 뜻한다.
② 납품가 인하를 부당하게 용인하는 지역 규범은 가까운 기업 관계를 협력보다 종속으로 기울게 한다.
③ 디스플레이 부품 수요가 차량 전자부품으로 옮겨갈 때 지역적 고착은 낡은 공정 이탈을 앞당긴다.
④ 기능 인력이 업체 사이를 이동하면 기업의 자체 기술 양성 부담은 더 커진다.
⑤ 세계 수요가 급감할 때 설비 전환을 이끄는 요인은 부지비와 물류비 격차뿐이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기업 사이의 관습적 믿음이 집적을 낳는다고 보는 반면, ㉡은 입지 선택을 금전적 유인에 대한 계산으로 설명한다.
② ㉠은 집적을 기업의 입지 계산으로 설명 하고, ㉡은 거래 상대의 관계와 맞춤형 설비 투자 뒤의 의존 문제를 중시한다.
③ ㉠은 지역의 규칙과 관행이 생산 활동을 조직한다고 보지만, ㉢은 그러한 규칙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한다.
④ ㉡은 잦은 거래가 협력적 관계를 보장한다고 보고, ㉢은 클러스터 정책을 시설과 재정 지원의 이전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과 ㉢ 모두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협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S시는 초기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여 다수의 바이오 벤처기업과 제약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입주 기업들은 특정 질환 검사용 특수 시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가의 맞춤형 실험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약 수요가 감소하자 일부 기업이 공동 설비 유지비 납부를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했다.

이때, S시에 위치한 K대학의 연구진이 자신들의 임상 데이터를 위기에 처한 벤처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새로운 진단 키트로의 사업 전환을 도왔다. 또한, 지역 내 바이오 기업 협회는 위기 시기 동안 상호 간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해 주는 암묵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로 인해 S시 클러스터는 쇠퇴를 면하고 재구성에 성공하였다.

① 신고전파적 입지 설명에 따르면, S시가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K대학 연구진이 임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수익이 비용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다.

② 거래비용의 관점에 따르면, 시약 개발을 위해 맞춤형 실험 설비를 구축한 행위는 계약 이후 상대가 약속을 바꿀 위험을 줄여주는 장치로 기능했다.

③ 바이오 기업 협회가 도출한 대금 지급 유예의 암묵적 합의는 신고전파적 입지 설명이 전제하는 기업이 비용 표에 반응하는 단위라는 설명을 강화한다.

④ 제도주의 경제지리학에 따르면, K대학 연구진이 임상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 것은 신기술 개발 위험을 업체에서 지역적 부담으로 분산한 사례에 해당한다.

⑤ S시 클러스터가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에도 쇠퇴를 면한 것은 지역 문화의 미덕이라는 비경제적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랫폼 경쟁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집단의 접속 조건을 정하는 통로가 될 때, 그 통로의 힘을 어느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효과로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음식을 배달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인 배달 앱은 소비자에게 음식점 검색과 결제를 제공하면서 음식점에는 주문 유입을 팔고, 검색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무료 검색을 제공하면서 광고주에게 노출 기회를 판다. 그러므로 이용자 쪽의 이용 가격이 0원이라는 사정은 시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쪽 집단의 참여가 다른 쪽 집단의 가치를 높이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가격 대신 품질, 노출 순위, 개인정보 요구량을 통해 거래조건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다면시장에서 관련시장을 정하는 일은 단순히 어느 서비스가 어느 서비스로 대체되는지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이용자가 검색 품질 저하나 광고 증가에도 떠나지 않는 경우, 그 잔류는 경쟁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계정, 리뷰, 결제 기록, 친구 목록에 묶인 잠금효과가 크다는 증거일 수 있다. 더구나 데이터 축적은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추천 정확도는 다시 이용자를 붙잡으며, 이용자 증가는 광고주의 의존을 키운다. 이 순환이 계속되는 한 시장점유율은 지배력의 결과일 뿐 아니라 장래 지배력을 더 키우는 투입물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힘이 이미 특정 행위로 나타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가 문제 된다. 예컨대 검색플랫폼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하거나, 앱마켓 운영자가 외부 결제를 금지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심사의 초점은 그 플랫폼이 중개 경로를 통제하는지와 그 통제가 경쟁자의 도달 가능성을 줄이는지에 놓인다. 자사우대가 단지 더 좋은 서비스를 앞세운 결과라면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자사우대가 순위 배열이나 기본 설정을 이용해 경쟁 서비스의 발견 가능성을 낮춘 경우라면 단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선택권과 혁신의 손상이 경쟁제한 효과가 된다.

그러나 같은 플랫폼의 확장이라도 기업결합 제한은 다른 질문에서 출발한다. 메신저 기반 생활서비스 사업자가 아직 매출은 작지만 젊은 이용자의 예약·결제 동선을 확보한 앱을 인수하는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위험이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앱이 장래에 배달, 광고, 결제 시장에서 독자적 압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인수는 현재 경쟁자의 배제가 아니라 잠재 경쟁자의 제거가 된다. 데이터 결합이 맞춤형 광고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항변이 있더라도, 그 결합이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이용자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이 다시 메신저 이탈을 어렵게 한다면 효율성은 봉쇄 가능성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이 차이는 사후적 규제와 사전적 심사의 시간 구조에서 비롯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이미 확보된 통제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따지므로 수수료 부과, 끼워팔기, 자사우대가 실제로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좁혔는지를 세밀하게 본다. 반면 기업결합 제한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쟁의 가능성을 다루므로, 작은 예약앱이나 지역 배달앱이 현재는 약해 보여도 그 앱이 데이터, 이용자 기반, 기술을 통해 장차 플랫폼의 병목을 흔들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전자는 행위의 배제성을, 후자는 구조

변화의 비가역성을 중심에 둔다.

이 때문에 플랫폼 행위는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파급이 도달하는 제2차 관련시장까지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배달앱의 수수료 정책은 음식점 중개시장에 속하지만, 수수료 인상이 광고상품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고 광고 노출이 주문 순위를 좌우한다면 온라인 광고시장은 별개의 외부 영역이 아니라 원래 행위가 경쟁조건을 바꾸는 영역이 된다. 플랫폼 경쟁법은 이처럼 무료 서비스의 시장성, 데이터 통제의 후생 효과, 잠재 경쟁의 소멸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소비자 후생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 데이터 이전 가능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여지로 평가될 수 있다.

25.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검색 이용료가 없어도 노출 순위는 거래조건이 된다.
② 품질 저하 속 잔류는 잠금효과의 징표가 된다.
③ 자사쇼핑 상단 고정은 발견 가능성 침해 때 남용으로 다뤄진다.
④ 성장 여지가 있는 예약앱 인수는 잠재 경쟁 압력 제거로 평가된다.
⑤ 광고 정확도 향상은 데이터 결합의 봉쇄성을 낮추는 근거다.

26. 윗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구조 변화의 비가역성을 중심에 두고, '기업결합 제한'은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좁혔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중심에 둔다.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장래 지배력을 더 키우는 투입물을 사전 심사하며, '기업결합 제한'은 플랫폼 행위의 파급이 제2차 관련시장으로 도달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한다.
③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경쟁 서비스 발견 가능성 저하를 통제하고, '기업결합 제한'은 장차 플랫폼의 병목을 흔들 잠재적 경쟁자의 소멸을 다룬다.
④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직접 거래 시장 내의 후생 효과만을 평가하고, '기업결합 제한'은 데이터 통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등장의 여지를 제외한 채 심사한다.
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기업결합 제한' 모두 데이터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낮은 가격의 유지 여부를 소비자 후생의 기준으로 삼아 행위의 배제성을 평가한다.

27. 플랫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핑중개 시장에 속한 거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A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과 방대한 구매 기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A는 두 가지 전략을 실행했다.

[전략 1] A는 자사 쇼핑몰 검색 결과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A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만을 상단에 고정 노출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상품 가격의 변동은 없었으나, 경쟁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의 주문 유입이 급감했다.

[전략 2] A는 이용자 수가 적고 매출은 미미하지만, 10대들의 독창적인 패션 트렌드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신생 숏폼 앱 B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① [전략 2]에서 두 서비스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이용자 맞춤형 추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이 인수는 잠재 경쟁자의 제거가 유발하는 봉쇄 가능성과 함께 평가 되어야한다.
② [전략 1]에서 A가 결제 시스템과 구매 기록의 잠금효과를 이용해 중개 경로를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행위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심사 대상이 된다.
③ [전략 2]에 대한 기업결합 제한 심사에서는, B의 현재 시장점유율로 파악되는 위험보다 장래에 패션 또는 광고 시장에서 독자적 압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④ [전략 1]에서 단기적인 상품 가격의 변동이 없었더라도, A의 기본 설정 변경이 경쟁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발견 가능성을 낮췄다면 경쟁제한 효과로 평가될 수 있다.
⑤ A의 쇼핑중개 시장에 속한 수수료 정책이 A의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여 결제 시장의 경쟁조건을 바꾼다면, 쇼핑중개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 헌법소송을 이해하려면 헌법위원회가 처음부터 개인의 소송기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과 어긋나는지를 살피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이때 법률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심사는 이미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보다 법률이 효력을 얻기 전 통치구조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가깝다. 조직법이나 의회 규칙처럼 반드시 심사를 거치는 대상도 있고, 대통령·총리·양원 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제청하여 심사를 받는 법률도 있다. 선거운동 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야당의 표현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 법률을 아직 적용받지 않은 시민이 아니라 제청권자가 헌법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사전심사의 장점은 법률이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데 있지만, 사전심사는 공포 후 현실에서 드러나는 침해를 모두 예견하지는 못한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우선적 위헌문제(QPC)는 이미 시행 중인 법률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때 작동한다. 온라인 집회 선동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조항의 불명확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거나, 구금 기간을 정한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피고인은 헌법위원회에 직접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법원 앞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자신의 재판 결과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QPC에서 일반 법원은 단순한 우편함이 아니다. 일반 법원은 문제 된 법률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이미 같은 취지로 판단된 문제가 아닌지, 헌법문제로 다룰 만한 진지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 뒤 최고 행정법원 또는 파기원이 다시 선별하여 헌법위원회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통로는 개인의 사건에서 열리지만, 개인의 주장이 헌법위원회에 도달하려면 법원의 여과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조항은 공포 전 심사의 경우 시행될 수 없고, QPC의 경우 결정 공포일이나 결정이 정한 장래 시점부터 폐지될 수 있으므로, 구제의 시간표도 심사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식 구조에서 헌법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적법성도 다룬다.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법률심사와 다른 성격을 띠지만, 두 기능은 모두 민주적 결정이 절차적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헌법소송은 헌법위원회가 의회를 대신하여 정책을 고르는 제도라기보다, 공포 전에는 법률의 진입을 통제하고 공포 후에는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기본권 침해를 걸러 내며, 선거·국민투표 영역에서는 대표 형성의 절차를 감시하는 여러 통로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탄핵심판을 나누어 담당한다. 재판 중 법원이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별도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법률이 별도 집행행위 없이 평등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면 개인은 헌법소원으로 직접 권리구제를 구상할 수 있다.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처분이 자기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가 문제 되고,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공직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차이는 시민의 소송 전략과 법원의 역할을 바꾼다.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믿는 개인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법원을 통해 헌법문제를 상승시켜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구체적 분쟁을 헌법위원회의 규범심사로 번역하는 관문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개인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다투는 경로와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경로를 함께 검토한다. 결국 헌법재판기관은 정치적 선택을 새로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이 기본권 보장과 충돌하는 지점을 절차별로 배치하는 기관이다.

28.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① QPC에서 일반 법원은 헌법심사 청구내용을 헌법위원회로 전달한다.
② 프랑스 사전심사는 공포 후 침해 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삼는다.
③ 조직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제청하지 않아도 헌법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위헌법률심판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탄핵심판으로 고위 공직자의 파면을 판단한다.

29. 프랑스의 '공포 전 심사', '우선적 위헌문제(QPC)',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소송'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포 전 심사'는 법률의 헌법 적합성 심사를 시민이 직접 청구하지만, 'QPC'는 파기원이 직권으로 헌법위원회에 청구한다.
② '공포 전 심사'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조항은 결정 공포일이나 장래 시점부터 폐지되지만, 'QPC'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사회에 들어오기 전이므로 시행될 수 없다.
③ 'QPC'와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판' 모두 재판 과정에서 시행 중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될 때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QPC'에서 개인의 주장은 일반 법원의 판단 없이 최고 행정법원으로 직행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⑤ '공포 전 심사'는 통치구조의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고위 공직자의 공직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30. <보기>의 상황에 대해 지문의 관점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가 A와 국가 B는 새로운 <집회 및 시위법>을 동시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허가받지 않은 야간 집회 참석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조항(제7조)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A는 지문의 프랑스 헌법소송 체계를 취하고 있다.
국가 B는 지문의 대한민국 헌법소송 체계를 취하고 있다.

① 국가 A에서 <집회 및 시위법>이 공포되기 전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제7조의 헌법 위반을 제청한다면, 이는 구체적 침해를 구제하기보다 법률 시행 전 통치구조의 균형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국가 A에서 <집회 및 시위법>이 이미 시행된 후 제7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甲은 헌법위원회에 직접 청구서를 내는 대신, 자신의 사건을 맡은 일반 법원을 관문으로 삼아 헌법문제를 상승시켜야 한다.
③ 국가 B에서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乙이 재판 중 일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乙은 별도의 헌법소원 경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
④ 국가 B에서 이 법률이 평등권을 명백히 직접 제한하더라도 별도의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 丙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국가 A의 최고 행정법원이나 파기원이 甲의 사건에서 제7조가 헌법문제로 다룰 진지성이 없다고 선별하여 헌법위원회로 보내지 않는다면, 甲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헌법위원회의 규범심사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 정답지와 해설지는 leetworld.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